

문화성향, 성역할 정체감 및 도덕적 지향성*

조궁호⁺
서강대학교

이재영
중동고등학교

문화성향에 따라 성역할 정체감과 도덕적 지향성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 내적 비교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성성 성역할 정체감과 정의지향적 도덕성 수준은 개인중심성향자가 집단중심성향자보다 높고, 반대로 여성성 성역할 정체감과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은 집단중심성향자가 개인중심성향자보다 높았다. 또한 여성성 성역할 정체감은 집단중심성향이 배려지향적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매개 역할을 함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두 문화성향 집단의 인간관계 대인관계 조망의 차이를 근거로 하여 논의되었다.

주제어 : 문화성향(개인중심 · 집단중심), 성역할 정체감(남성성 · 여성성), 도덕성(정의지향 · 배려지향)

현대심리학에서 도덕성에 관한 연구는 도덕 감정의 내면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정신역동이론, 개별적인 도덕적 행동이 습득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학습이론, 그리고 도덕적 판단 능력의 발달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인지발달이론의 관점에 따라 전개되어 왔으나, 이 중에서 주축을 이루었던 것은 Piaget(1932/1965)와 Kohlberg(1976, 1981, 1984)를 중심으로 하는 인지발달이론 계열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도덕성의 형성과 습득 및 판단에 관해 보편적인 원리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진행되어 왔는데, 이러한 보편주의의 경향이 가장 심한 것도 역시 인지발달이론이었다(김정규, 박찬주, 1991; 김호권, 1969; 정옥분, 광경화, 2003; 조궁호, 2006; Fiske, Kitayama, Markus, & Nisbett, 1998; Gielen & Markoulis,

1994; Miller, 1997).

도덕 판단 능력이 “타율적 도덕 판단” 단계에서 “자율적 도덕 판단” 단계로 발달해간다는 Piaget(1932/1965)의 이론을 확장하여, Kohlberg(1976, 1981, 1984)는 도덕 판단은 “인습 이전 수준”(처벌을 회피하거나 보상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판단하는 수준), “인습 수준”(사회를 유지하는 규칙과 법률 · 질서 같은 행위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판단하는 수준), “인습 이후 수준”(개인의 자율성이나 권리, 개인 존재의 존엄성, 보편적 인권 및 사회계약의 기본 정신 등의 보편적 도덕률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수준)으로 나뉘어지며, 각 수준은 다시 두 단계씩 모두 6단계¹⁾로 이루어지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위 단계의 도덕 판단을 하게 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도

* 이 연구의 결과 처리 과정에서 박동필 선생(HR Partner Consulting)의 도움을 받았다. 감사드린다.

⁺ 교신저자 : 조궁호, (121-742) 서울 마포구 신수동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2) 705-8560,

E-mail : ghcho@sogang.ac.kr

- 1) 1단계 : 벌과 복종 지향 단계 (보상과 처벌을 중심으로 판단)
- 2단계 : 목적과 상호교환 지향 단계 (자신의 흥미와 욕구 충족을 기준으로 판단)
- 3단계 : 착한 아이 지향 단계 (타인의 기대나 의도에 따라 판단)

덕 판단은 어느 사회에서나 인습 이후 수준에서 정점을 이루는 보편적 원리에 따라 발달하게 되는데, 5단계나 6단계 등 상위 단계의 판단일수록 심리적으로 더욱 진보된 것일 뿐만 아니라, 더욱 포괄적이고 순수한 형태의 정의 수준에 도달된 판단이라고 Kohlberg(1984)는 주장하였다. “결국 그의 도덕 추론에 관한 연구는 두 가지 근본적인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데, 첫째는 도덕 관념이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으로 덜 분화된 추론 단계에서 더 분화된 단계로 발달한다는 과학적 또는 경험적 주장이고, 둘째는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높은 단계의 도덕 판단이 낮은 단계보다 우수한 도덕성을 반영한다는 윤리적 또는 규범적 주장이다”(Gielen & Markoulis, 1994, p. 75). 이렇게 도덕 판단 단계는 개인적 자율성과 존엄성, 인권 및 사회계약의 기본률 등 자유주의적 정의 원칙을 최종 지향점으로 삼아 발달하게 된다는 도덕성의 보편원칙론을 주장하는 것이 Piaget와 Kohlberg 등 인지발달론자들의 기본 입장인 것이다(Fiske et al., 1998; Gielen & Markoulis, 1994; Matsumoto, 2000; Miller, 1997).

그러나 많은 연구들에서 Kohlberg의 도덕 판단의 6단계 계열은 인지발달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문화보편적인 것이 아님이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면, Snarey(1985)는 27개국에서 실시된 45개의 연구를 개관하여, Kohlberg의 첫 두 단계(인습 이전 수준)는 문화보편적이거나, 인습 이후 수준에 해당하는 5~6단계의 도덕 판단은 미국 등 서구문화권의 국가들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문화특수적인 것임을 밝혀내고 있다. 그 이전에 이미 Bergling(1981)과 Edwards(1981)도 많은 문화 비교 연구들을 개관하여, 같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에서 중요한 것은 Kohlberg의 6단계 중 최상의 5~6단계(인습 이후 수준)의 도덕 판단이 비서구문화권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만이 아니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Kohlberg의 이론에서처럼 개인의 자유와 선택, 개인의 천부적 인권, 개인 존재의 존엄성 등 “도덕적으로 자율적인 개인이 되는 것을 이상”(Fiske et

al., 1998, p. 940)으로 삼는 서구 사회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보편적인 도덕률의 유일한 출처로 간주하는 것이 문화보편적일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즉, “Kohlberg 이론의 기본 가정은 사회적 규칙이나 문화적 관습 등과는 상관없는 개인적 원칙이나 양심에만 근거하는 도덕 판단이 최상위 수준의 도덕 추론을 대표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가정은 이 이론이 도출된 1950년대와 60년대 미국 중서부 남성들의 문화적 환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Matsumoto, 2000, p. 200) 문화특수적인 것일 뿐, 보편적인 도덕률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비록 개인주의와 개별적인 개인적 양심 등의 관념이 이 시기(1950~60년대) 미국 남성들의 도덕적 판단의 특징을 기술하기에 적합한 것이었을지라도, 이러한 관념들이 모든 문화권의 남·녀를 통털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도덕원칙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Matsumoto, 2000, p. 200). 특히 Gilligan(1982)은 같은 개인주의 사회에서조차도 개인의 자유·선택·자율성 등을 기초로 하는 도덕성은 남성들만의 것일 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 관계 통합 및 조화의 유지에 관심이 깊은 여성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도덕원칙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Taylor(1989)는 한 사회의 도덕 관념은 그 사회의 인간관을 그대로 반영하기 마련이어서, 도덕성의 본질 또는 기능은 각 사회에서 인간을 파악하는 관점이 달라지는 데 따라 변화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선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서구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을 타인이나 집단과 분리되고 구획된 독립적인 실체라고 보므로, 개인은 자기 실현을 목표로 하여 자기가 지향하는 바를 자유롭게 추구하고, 이에 맞게 살 자율적 권리를 지닌다는 관점에서, 도덕성의 본질을 개인의 자유 선택과 독립적인 개인들 사이의 계약에서 찾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아시아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은 타인이나 집단과 맺는 관계 속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보므로, 자기확대를 목표로 하는 타인이나 집단에 대한 배려에서 도덕성의 본질을 찾게 될 것이다(조공호, 2006; Fiske et al., 1998; Hamilton, Blumenfeld, Akoh, & Miura,

4단계 : 법과 질서 지향 단계 (법과 질서 준수의 차원에서 판단)

5단계 : 사회 계약 지향 단계 (모든 사람의 복지와 권리 보호라는 차원에서 판단)

6단계 : 보편적 원리 지향 단계 (존엄성·평등·정의 등 보편적 윤리기준에 입각한 판단)

1990; Matsumoto, 2000; Miller, 1991, 1994, 1997; Miller & Bersoff, 1992, 1994; Miller, Bersoff, & Harwood, 1990; Miller & Luthar, 1989). 도덕성의 본질에 관한 이러한 두 문화권의 관점의 차이는 도덕적 문제 상황의 규정이나 도덕성의 기능에 관한 제반 입론의 차이를 낳게 되는 것이다.

개인주의 사회와 정의의 도덕성

서구의 자유주의 사상에서는 존재론적 우선성(ontological priority)을 공동체나 집단보다는 개별적이고 비사회적인 개인에게 두고 있으며, 사회관계란 이러한 개인들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합의함으로써 형성되는 이차적이고 후속적인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유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서구 사회의 도덕적 전통은 매우 개인주의적이었다(Fiske et al., 1998). “개인을 여러 가지 천부적 권리와 자유를 지닌 이성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모든 행위의 원천이 되는 고정적·안정적 속성을 완비하고 있는 존재라고 간주하는 자유주의의 관념은 이러한 개인주의적 도덕성에 관한 접근에서 핵심을 이룬다”(조궁호, 2006, p. 532).

이러한 개인주의적 접근의 근본 가정은 사회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사이의 계약의 산물이라고 본다는 점이다. 즉,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면서 상호간의 이익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을 맺고, 사회적 행위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 원칙들은 서로 간에 개인적 이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만큼의 범위에서 합법적이며, 사회의 안녕은 부당한 침해에서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서 나온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과 이익 갈등이 빚어졌을 때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할지에 대해 이성적 사고로써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결과 개인은 도덕적 자율성을 보유하게 된다는 것이다(Kittay & Meyers, 1987). 이러한 행위 원칙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은 공정성을 근간으로 하는 정의의 원칙이며, 도덕성은 이러한 공정한 정의 원칙에 따른 자율적 선택에서 나온다고 보는 것이 “정의의 도덕성”(the morality of justice)으로, 이는 자유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는 서구 사회의 중추적인 도덕 관이다(조궁호, 2006; Fiske et al., 1998; Gilligan, 1982; Miller, 1997).

이와 같이 개인주의 사회의 기본 도덕률인 정의의 도덕성은 개인적 자유의 관념과 사회계약의 개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도덕 판단의 목표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것에 두며, 타인의 권리를 증진하거나 타인을 돕는 것은 도덕 판단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공정성을 근간으로 하는 정의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면 남을 도울 의무나 책임은 없어지고, 따라서 남을 돕거나 집단의 이익을 꾀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재량권의 문제이지 도덕적 전제 조건은 아니게 된다. 이와 같이 서구 개인주의 사회에서 지배적인 정의의 도덕성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하여 성립하고 있으며, 타인에 대한 배려나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이 도덕 판단의 핵심이라 보는 관점이다(Fiske et al., 1998; Nunner-Winkler, 1984).

서두에서 살펴본 Kohlberg(1976, 1981, 1984)의 도덕 판단 단계론은 정의의 도덕성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형적인 이론이다(Fiske et al., 1998). 그는 사회계약, 개인의 자유와 권리, 개인 존재의 존엄성, 공정한 교환 등 서구 개인주의 사회에서 강조하는 덕목들을 도덕 판단의 보편적 기준으로 상정하므로써, 오로지 정의의 도덕성에만 기초한 도덕 판단 단계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도덕적으로 자율적인 개인을 이상으로 규정하여 도덕 판단 단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도덕적 세계에 대한 판단도 물리적 세계에 대한 판단과 마찬가지로 진·위 또는 정·오의 문제”(Fiske et al., 1998, p. 940)라고 보고 있다. 즉,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정의 원칙이 도덕적 행위와 그 판단의 준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도 보았듯이, 이러한 도덕관은 개인적 가치와 권리, 그리고 자율성을 중시하는 서구 개인주의 사회의 문화특수적인 것일 뿐, 대인관계의 조화와 사회적 의무,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중시하는 동아시아 집단주의 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강조되는 도덕관은 아닌 것이다.

집단주의 사회와 배려의 도덕성

개인주의 사회와는 달리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존재론적 우선성을 개인 존재가 아니라 개인들 사이의 관계나 집단에 둔다. 여기에서는 개인의 존재 의미는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과의 연계성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간주하며, 스스로를 타인과의 상호존적인 관계 속의 존재로 파악한다. 그러므로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집단이나 대인 관계가 부과하는 의무와 규범에 따라 동기화되므로써”(Triandis, 1995, p. 2), 상호 관계에서 도출되는 쌍무적인 역할과 의무 및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사회행위의 근본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고 여긴다. 이들에게 사회생활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집단 또는 관계의 안정과 조화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개인적 목표보다는 집단의 목표에 우선권을 두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Triandis, 1995, p. 2). 이러한 맥락에서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배려하며, 그들의 복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일을 중히 여기고 높이 평가한다(조궁호, 1993, 1996, 1997, 1999, 2000, 2003a, 2006; Bond, 1994; Fiske et al., 1998; Hofstede, 1980, 1991; Hui & Triandis, 1986; Kagitcibasi, 1997; Markus & Kitayama, 1991; Smith, Bond, & Kagitcibasi, 2006; Triandis, 1988, 1989, 1990, 1995).

이와 같이 인간의 사회성을 강조하는 집단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 및 공정한 교환에 바탕을 둔 정의의 원칙은 이차적인 관심으로 밀려나게 되며, 따라서 이들의 도덕성의 관념은 지극히 관계중심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Yeh, 1996). 이 사회에서는 객관적인 행위 원칙인 정의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차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것일 뿐이며, 이보다는 대인관계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 사회적인 의무 수행이 더 중요하게 부각된다. 이들은 대인관계에서의 서로 간의 배려와 책임 및 사회적인 의무가 도외시되거나 무시되면, 객관적인 행위 원칙의 도출 근거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고 본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에서 도덕성의 근거를 찾으려 하는 것이 “배려의 도덕성”(the morality of caring)으로, 동아시아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도덕성을 개념화하고 있다(조궁호, 2006; Fiske et al., 1998; Gilligan, 1982; Matsumoto, 2000; Miller, 1991, 1994, 1997; Smith et al., 2006).

이렇게 배려의 도덕성은 도덕성의 출처를 대인관계에서의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및 책임감에서 찾으려 하는 입장이다. 개인이 스스로의 권리나 자유 또는 이익보다는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우선

시하는 데에서 도덕성이 나오게 된다고 보는 것이 집단주의 사회의 특징이다. 즉 “집단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욕구와 권리에의 관심은 사회적 의무보다 부차적이며, 개인간의 근본적인 상호존성에서 나오는 대인간 책임감이 강력한 도덕적 ‘선’으로 경험되는 것이다”(Fiske et al., 1998, p. 941). 이렇게 집단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사회적 의무, 대인관계의 조화 유지 등에서 도덕성의 근거를 찾는다는 사실은 Miller(1984, 1991, 1994, 1997; Miller et al., 1989, 1990, 1992, 1994; Shweder, Mahapatra, & Miller, 1990)의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거듭 밝혀지고 있다.

성역할 정체감과 도덕성

사실 “배려의 도덕성”이란 개념은 Piaget(1932/1965) 이후 도덕성 연구 분야를 지배해 온 보편적 도덕률 전통에 대해 “도덕적 진리란 다양할 수 있다는 도전적인 주장을 제기하면서 Gilligan(1982)이 처음 제시한 것이다”(Fiske et al., 1998, p. 940). Gilligan(1982)은 낙태에 관한 갈등을 해결하는 장면에서 부딪혔을 때, 개인주의 사회에서조차도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도덕적 사고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이 경우 남성은 생명의 존엄성(태아)과 개인의 권리(임신한 여성) 사이의 갈등 상황으로 문제를 인식하여, 정의지향적 관점에서 도덕 판단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비해, 여성은 스스로 자기 문제를 처리할 권리(중절)와 사회적 약자인 태아에 대한 보호 및 이를 위한 자기희생을 선행으로 간주하는 여성적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되므로, 남성과는 다른 근거에서 도덕적 사고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Gilligan(1982)은 개인주의 사회에서조차도 정의의 도덕성은 남성중심적인 도덕 원리일 뿐이며, 대인관계의 조화와 책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배려의 도덕성의 관념에 기초하여 도덕의 문제를 규정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하므로써, 도덕성의 본질이 문화 간에서만 아니라 한 문화권 안에서도 성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Gilligan(1982)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도덕성 발달에서 성차가 나타나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으나, 지금까지 일치되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지 못하고 있다”(정옥분, 광경화, 2003, p. 56). 그리하여 연구자들의 관심은 생물

학적인 성차가 아니라, 각 성에 적절한 행위나 태도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문화적으로 학습된 결과인 성역할 정체감이 도덕성과 관련이 깊을 것이라는 쪽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Gilligan (1982)의 기대대로, 성별과는 상관없이, 여성성 성역할 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이 높음이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면, Söchtig, Skoe와 Marcia(1994)의 연구에서는 성별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별로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친사회적 행동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 또한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과 친사회적 행동 사이의 상관에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서는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에 차이를 보여, 여성적 성역할 정체감 수준이 높은 유형일수록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도 높아졌으며, 이들은 친사회적 행동 수준도 더 높았다²⁾. 이러한 결과는 생물학적 성별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산물인 성역할 정체감이 도덕성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의의 도덕성의 근거가 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의 추구, 공정한 계약과 거래를 통한 자기 이익의 추구, 적극적인 자기주장과 독립성의 추구 등은 서구 개인주의 사회에서 중시하는 가치들이면서 전통적으로 남성성 성역할 정체감과 관련이 깊은 주도적·도구적 특성들이고, 배려의 도덕성의 근거가 되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대인관계에서의 조화와 책임의 추구, 사회적 의무와 규범의 준수 등은 집단주의 사회에서 중시하는 가치들이

면서 전통적으로 여성성 성역할 정체감과 관련이 깊은 친교적·공동체적 특성들을 알 수 있다(정옥분, 광경화, 2003; 정진경, 1990; Bakan, 1966; Bem, 1974; Geen, 1995; Wiggins, 1992). 이렇게 보면, 정의의 도덕성이 개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배려의 도덕성이 집단주의 사회에서 지배적인 도덕관념이 되는 것은 이 두 사회에서 각각 남성성 성역할 정체감과 여성성 성역할 정체감을 강조하는 데에 그 까닭의 일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

이상의 논의에서 분명하여졌듯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정의의 도덕성이 지배적인 도덕 원칙으로 작용하고,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배려의 도덕성이 지배적인 도덕 원칙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추론의 배경에는 두 사회에서 지배적인 인간관과 이로부터 도출되는 대인관계의 양상이 다르다는 사실이 놓여 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로서의 개인의 자유·권리·자율성을 강조하는 개인중심적 인간관이 지배적이므로, 대인관계에서도 개인적 이익 추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이익 갈등의 조정 기제로서 공정한 교환을 강조하게 된다. 이에 비해,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로서의 관계의 통합과 조화 유지를 강조하는 관계중심적 인간관이 지배적이므로, 대인관계에서도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및 사회적인 의무의 수행을 강조하게 된다.

Clark와 Mills(1993; Mills & Clark, 1982)는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주의 사회의 지배적인 대인관계를 교환관계(exchange relationship), 집단주의 사회의 지배적인 대인관계를 공유관계(communal relationship)라 부르고 있다. 여기서 전자는 개인이 상대방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느끼지 않으며, 상호작용에서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주어야 하는 교호성(reciprocity)에 기초하는 관계이다. 이러한 교환관계에서는 필요에 의해 주고 받는 거래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개인 간의 이익과 손실의 거래 또는 교환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시된다. 이에 비해, 공유관계는 개인이 상대방의 복지에 대해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느끼며, 상호작용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 및 집단의 이익 증진 등 이타적 관심에 기초하는 관계이다.

이수원(1995a, b)과 공동연구자들(장성수, 이수원, 정진

- 2) Gillian(1982)은 “배려의 도덕성”이 세 수준과 두 과도기로 구분되는 5단계로 발달한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1단계(제1수준): 자기중심적 단계 (스스로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수준)
 2단계(1.5수준): 이기심에서 책임감으로 변화하는 과도기 (자기 자신만의 행동에서 책임감을 중시하는 과도기적 수준. 이기심과 책임감이 공존하는 단계)
 3단계(제2수준): 책임감과 자기희생의 단계 (타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수준. 타인에 대한 책임감 강조)
 4단계(2.5수준): 선행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진실성으로 변화하는 과도기 (타인만을 위한 배려와 희생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진실성을 지각하는 과도기적 수준)
 5단계(제3수준): 자신과 타인을 배려하는 단계 (자신과 타인의 상호연계성을 통하여 이기심과 책임감 사이에 역동적이고 통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수준)

곤, 1990)은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익 추구에 바탕을 둔 “공정성”을 기준으로 대인관계를 조망하기 때문에 교환관계가 지배적인 대인관계 양상으로 대두되고,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이타성에 기초를 둔 “인정성”을 기준으로 대인관계를 조망하기 때문에 공유관계가 지배적인 대인관계 양상으로 대두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이수원, 1995b)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사회의 도덕 판단을 지배하는 원칙은 각각 “정의에 대한 책무”와 “선행에 대한 책무”에서 나오는 것임을 밝혀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Miller(1991, 1994, 1997; Miller et al., 1989, 1990, 1992, 1994)가 이미 지적하고 있는 바이다.

이 두 가지 도덕원칙은 각각 본고에서 말하는 “정의의 도덕성” 및 “배려의 도덕성”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대인관계를 조망하는 관점이 각각 공정성과 이타성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 정의의 도덕성과 배려의 도덕성이 지배적인 도덕원칙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라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사회에서 각각 공정성과 인정성(이타성)이 지배적인 대인관계 조망의 관점으로 등장하는 배경에는 이 두 사회의 사회화(socialization) 과정의 강조점의 차이가 놓여 있다(Kagitcibasi, 1997; Smith et al., 2006; Triandis, 1990, 1995).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권리·자율성·이성·이익 추구 등을 중시하기 때문에 아동 양육 과정에서 적극적인 자기주장, 경쟁, 합리적이고 공정한 교환, 독립성과 자율적 선택 등을 강조해 왔고, 따라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남성성 영역화와 동일시되어 온 특성들이 전형적인 성격(modal personality)의 특성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비해,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관계의 통합과 조화, 사회적 책임과 의무, 내집단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 등을 중시하기 때문에 아동 양육 과정에서 자기억제·겸손·양보·협동·조화·연계성·타인 배려 등을 강조해 왔고, 따라서 이 사회에서는 이렇게 전통적으로 여성성 영역화와 동일시되어 온 특성들이 전형적인 성격의 특성으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남성성 영역화 정체감 수준이 높을 것이고,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여성성 영역화 정체감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추론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문화권에 따른 사회화 강조점의 차이에 따라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사회에서 각각 주도적·도구적 특성(남성성 영역화 특성)과 친교적·공동체적 특성(여성성 영역화 특성)이 전형적인 성격 특성으로 부각되고, 이러한 특성들이 전술한 바와 같이 “공정”(정의)에 대한 관심과 “인정”(배려·선행)에 대한 관심의 배경으로 작용한다면, 사회화 강조점의 차이에 따라 각 문화 집단에서 중시되고 부각되는 영역화 정체감이 서로 다른 유형의 도덕성 수준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³⁾.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론들을 검증해 보려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두 문화 집단간(국가간) 비교의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차 연구 방법을 원용하여 동일 문화내의 문화성향 집단간 비교의 방법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⁴⁾. 즉, Triandis(1988, 1989, 1990, 1995)와 그 일파들(Singelis, Triandis, Bhawuk, & Gelfand, 1995; Triandis, Bontempo, Villareal, Asai, & Lucca, 1988; Triandis & Gelfand, 1998; Triandis, Leung, Villareal, & Clark, 1985; Triandis, McCusker, & Hui, 1990) 및 한규석(1991, 2002; 한규석, 오점조, 1995) 등에 따라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개인중심성향자(idiocentric)와 집단중심성향자(allocentric)로 나누고⁵⁾, 그들의 영역화 정체감과 도

- 3) 말하자면, 본 연구는 “문화유형에 따른 인간관과 대인관계 조망의 차이→사회화 강조점의 차이→지배적인 성격 특성(영역화 정체감)의 차이→지배적인 도덕원칙의 차이”의 기본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 4) Triandis, McCusker, Betancourt 등(1993)과 Smith 등(2006)에 따르면, 문화 비교 연구는 문화간 비교 분석 방법과 문화내적 분석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Smith(1995)에 따르면 문화간 비교 분석 방법에 따라 국가간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연구는 32.5% 정도이고, 단일 문화내에서 문화성향의 개인차를 측정하여 이 문화성향을 기초로 집단간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연구가 32.6%에 이른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내적 분석 방법이 문화 비교 연구의 주요 방법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최상진과 한규석(2000)은 전자를 비교문화적 방법, 후자를 문화심리학적 비교의 방법이라 부르고, 전자에 비해 후자가 가지는 이론적·효용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문화 비교 연구의 방법으로서 이러한 문화내적 분석 연구가 갖는 장점에 대해서는 선기 필자(조근호, 2003b, pp. 88-90) 참조.
- 5) 우리나라에서 이 두 문화성향 집단 간에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국가간 문화 비교 연구들에서 추론하고 예측하는 것과 똑같은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선기 필자에 의해 귀인 편향(조근호, 김소연, 1998), 동조 행동(조근호, 김은진, 2001), 자의식 유형(조근호, 명정완, 2001),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조근호,

덕 원칙 발달의 수준이 앞에서 추론한 대로의 문화 집단 간 차이를 보일 것인지를 확인해 보려 하였다.

방 법

연구참가자

서울지역에 소재한 6개 고등학교 2학년생 총 597명이 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총 597명 중 여러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중복 응답을 한 경우 등 부적절하게 설문지를 작성한 93명을 제외한 총 504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들 중 남학생은 253명(50.2%), 여학생은 251명(49.8%)이었다.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2쪽의 문화성향 척도, 1쪽의 성역할 정체감 척도, 3쪽의 정의지향적 도덕성 척도, 그리고 2쪽의 배려지향적 도덕성 척도가 사용되었다. 성별을 기술하게 되어 있는 연구 전체 소개문(평소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한 연구라고 소개한 다음, 개인의 응답은 전체적인 통계처리 자료로만 사용될 뿐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으니, 솔직하게 응답해 줄 것을 부탁하는 10줄짜리 글)을 첫 장에 넣어 소책자를 구성하였다.

문화성향 척도

연구참가자들의 개인중심성과 집단중심성의 문화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Singelis 등(1995)이 제작한 "INDCOL (Individualism-Collectivism) 척도"를 김기범(1996)이 우리나라 판으로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기범(1996)이 표준화한 이 척도는 Singelis 등(1995)의 원 척도와 거의 유사한 요인 구조를 보이며, 다른 지표들과 높은 수준의 공준 및 예언타당도를 가지는 것임이 밝혀졌다.

이 척도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성향을 다시 수직/수평(vertical/horizontal)으로 나누어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수직적 유형은 불평등을 수용하고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반면, 수평적 유형은 평등과 동등성을 강조한다.

2002), 공감 및 고독의 수준(조공호, 김지용, 홍미화, 김지현, 2002), 통제 양식(조공호, 2003b), 유사성 판단의 비대칭성(조공호, 2005) 등의 영역에서 거듭 밝혀져 왔다.

따라서 수직적 개인주의(VI)는 경쟁적이며 남들을 이기는 것을 중시하고, 수평적 개인주의(HI)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한다. 반면, 수직적 집단주의(VC)는 집단과 가족을 개인보다 우선시하고, 수평적 집단주의(HC)는 평등한 동료들 사이의 동료애와 협동을 중시한다(Triandis, 1995; Triandis & Gelfand, 1998).

이 척도는 이러한 네 가지 하위척도를 측정하는 문항 여덟 개씩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들은 "전적으로 아니다"(1점)에서 "전적으로 그렇다"(7점)의 Likert식 7점 척도를 갖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특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수직적 개인주의(VI)와 수평적 개인주의(HI)를 합하여 개인중심성향 점수로 삼고, 수직적 집단주의(VC)와 수평적 집단주의(HC)의 점수를 합하여 집단중심성향 점수로 삼는다.

이 연구에서는 네 가지 차원의 문항으로 문항 내적 일관성에 따른 신뢰도 검사를 해서 문항을 제거했을 때 요인 점수가 평균 Cronbach α 계수보다 높게 나오는 17번 문항을 제외하고, 31문항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Cronbach α 로 측정된 신뢰도는 VI=.72, HI=.78, VC=.63, HC=.76이었으며, 척도 전체는 .81이었다.

성역할 정체감 척도

연구참가자의 성역할 정체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정진경(1990)이 개발한 "한국형 성역할 검사"(KSRI)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우리 사회의 성 고정관념을 기초로 하여 성역할 성격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양성성 이론에 입각하여 Bem(1974)이 고안한 성역할 검사 제작 방식에 따라 남성성·여성성·긍정성의 세 영역 별로 20문항씩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성성 문항은 일반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긍정적 문항으로 구성되어 지고(믿음직스럽다, 과묵하다, 자신감 있다, 독립적이다, 지도력 있다 등), 여성성 문항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긍정적 문항으로 구성되어(어질다, 친절하다, 따뜻하다, 인정이 많다, 다정다감하다 등), 긍정성 문항은 성별과 관련지어서는 중성적이고, 자신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표현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문항(성실하다, 부지런하다, 솔직하다, 겸손하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전적으로 아니다”(1점)에서 “전적으로 그렇다”(7점)의 Likert식 7점 척도를 사용한다. 이 척도에서는 각 영역별 평균 점수를 각 응답자의 남성성·여성성·긍정성 점수로 삼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할 정체감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는 KSRI 문항 중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는 긍정성 문항 20개를 제외하고, 남성성과 여성성 문항 40개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는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서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만을 고려한 중앙치 분리법(Median Split Procedure)을 사용한다. 전체 응답자 집단의 남성성·여성성 점수들의 중앙치를 준거로 하여, 남성성 점수가 높고 여성성 점수가 낮으면 남성성 유형(Masculinity Type), 남성성 점수가 낮고 여성성 점수가 높으면 여성성 유형(Femininity Type), 남성성과 여성성 점수가 모두 높으면 양성성 유형(Androgyny Type), 남성성과 여성성 점수가 모두 낮으면 미분화 유형(Undifferentiated Type)으로 구분한다. 이 연구에서 Cronbach α 로 측정된 신뢰도는 남성성은 .89, 여성성은 .83이었다.

정의지향적 도덕성 척도

정의지향적 도덕성 수준은 Kohlberg의 도덕 판단 6단계를 통해 측정하는데, 이를 측정하는 대표적 방법은 Kohlberg, Colby, Gibbs와 Speichere-Dubin(1978)의 “도덕 판단 면담”(Moral Judgment Interview : MJI)의 기법과 Rest(1979)의 “주제 설정 검사”(Defining Issues Test : DIT)이다(Gielen & Markoulis, 1994). 이 중 Kohlberg 등(1978)의 MJI는 여섯 가지 도덕적 곤경 상황을 제시하고, 각각의 경우에 주인공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면담을 통해 진술하게 하고, 이를 내용 분석하여 피검사자의 도덕 판단 단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매우 힘든 작업일 뿐만 아니라, 그 객관성에도 문제가 많다. Rest(1979)의 DIT는 이러한 MJI 기법을 객관적으로 표준화하여 도덕 판단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문용린(1986)은 이 DIT의 여섯 가지 갈등 상황 중 “남편의 고민”(아내의 치료약을 훔칠 것인가를 고민하는 돈 없는 남편의 갈등), “탈옥수”(양심적인 사업가가 탈옥수임을 알았을 때 고발할 것인가의 갈등), “의사와 환자”(시한부 환자의 안락사

요구에 대한 의사의 갈등)의 세 가지를 선택하여 우리나라에서 표준화하였다.

이 척도는 각 갈등 상황을 제시해주고, (1) 각 상황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예·아니오 식으로 응답하게 하고 (모르겠다는 응답 포함), (2) Kohlberg의 도덕 판단 단계에 해당하는 문항 12개를 제시해주고, 이들 각각이 위의 결정에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갖겠는지를 “매우 중요하다”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의 Likert식 5점 척도에 평정하게 한 다음, (3) 이들 12개 문항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1순위부터 4순위까지 고르도록 한 것이다.

이 척도에서 중요한 것은 도덕 판단 6단계에 해당하는 문항들인데, 1단계를 제외하고 2단계부터 6단계까지의 도덕 판단 단계에 해당하는 문항이 1개(2단계와 6단계) 또는 2~3개(3, 4, 5단계)씩 포함되어 있으며, 이 이외에 문제 상황과 관련 없는 무의미한 문항(A 또는 M문항)이 2개 정도 제시되어 있다.

이 척도의 채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호 백분율 점수”(Preference Percent Score : P%)인데, 이는 (3)의 단계에서 응답자가 한 중요도 선택 반응을 기초로 하여 계산된다. 이 선택 과정에서 1순위로 선택되는 문항에 4점, 2순위는 3점, 3순위는 2점, 4순위는 1점을 배정하여, 이렇게 선택된 전체 문항의 합계 점수 중에서 5~6단계(인습 이후 수준)의 문항이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P% 점수가 된다. 즉, 이 P% 점수는 응답자의 도덕적 사고 중에서 인습 이후 수준의 5~6단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세 갈등 상황 각각에서 얻은 P%의 평균치를 각 응답자의 도덕성 수준으로 간주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상위의 정의지향적 도덕성 수준에 이르렀음을 나타낸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제시되는 상황의 가변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낮게 나오는 편이다. 문용린(1986)의 P%에 대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47이고,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67이었다. 본 연구에서 얻은 P%의 Cronbach α 는 .56이었는데, 이는 원 척도의 그것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배려지향적 도덕성 척도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Gilligan(1982)의 이론을 근거로 Skoe(1987)가 제작한 “배려의 윤

리 면접 검사”(Ethic of Care Interview : ECI)를 정옥분, 광경화(2003)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제작한 “청소년용 배려의 윤리 면접 검사”를 기초로,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이 새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옥분, 광경화(2003)의 검사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과 토론에서 청소년들이 친구 및 주변 사람들(부모·교사 등)과의 관계에서 직접 경험한 것으로 응답한 도덕적 갈등 상황 중에서, 자신의 이기적 욕구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및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을 가장 많이 겪는 것으로 보고한 세 가지 갈등 상황을 선택하여 제시해주고, 각각의 상황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개방식으로 응답하게 한 검사이다. 이 검사에서 선택한 갈등 상황은 “이성 친구와의 사랑과 동성 친구와의 우정의 문제”, “이성 친구와의 성관계로 인한 임신 중절의 문제”,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 등이었다.

필자들은 이러한 개방식 면접 검사가 기본적으로 정의 지향적 도덕성 검사 중 MJI(Kohlberg et al., 1978)와 같이 반응 분석의 곤란성과 객관성의 문제를 갖는다고 보고, Rest(1979)의 DIT와 같은 객관식 검사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그 방법은 Rest(1979)가 Kohlberg의 도덕 판단 6단계 각각에 해당하는 문항을 객관적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듯이, 여기서는 Gilligan(1982)의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발달 5단계 각각에 해당하는 문항을 구성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 제시된 정옥분, 광경화(2003)의 세 상황 이외에 “버스 안에서 웃어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문제”를 추가하여, 모두 네 가지로 청소년들이 전형적으로 경험하는 갈등 상황을 구성하였다.

Gilligan(1982)의 배려지향적 도덕성 발달 5단계 각각에 해당하는 문항을 구성하기 위하여, 우선 고등학교 2학년생 80명에게 네 갈등 상황을 제시해주고, 각각에 대해 정옥분, 광경화(2003)의 검사에서와 같은 두 가지 개방식 응답을 얻어내었다. 이 중 해결 방법에는 상관없이 그 이유에 대한 응답을 모아, 각 상황에 대한 전체 응답 모음을 구성하였다. 이어서 네 상황별 응답 각각이 Gilligan의 5단계 중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를 그녀의 이론을 숙지하고 있는 본 연구자들(사회심리학 전공의 심리학 교수와 상담심리학 전공의 석사과정 5학기생)과 윤리학 전공의 철학 교수 1인 등 3명이 각각 평정하였다. 이때 전체 응답 모

에 대한 세 평정자의 일치도는 90% 이상이었으며,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토론을 통해 어느 한 단계로 배정하였다.

그 후 각 상황에 대해 이렇게 하여 얻어진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각 단계별 문항들 중에서 세 평정자가 논의를 거쳐 가장 적절한 문항들을 하나씩 선정하여, 네 갈등 상황 각각에 대해 배려지향적 도덕성 발달 5단계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단계 배정과 적합한 응답지 선정에는 Skoe(1987)의 “배려의 윤리 면접 분석 방법”과 정옥분, 광경화(2003)의 “청소년용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단계 분류”(pp. 84-100)의 내용을 참조하여 기준으로 삼았다. 다음으로 각 갈등 상황 밑에 이렇게 선정된 5단계 문항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순서대로 나열하여 제시해주고, 각 상황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므로써 배려지향적 도덕성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남학생 참가자를 위한 남학생용과 여학생 참가자를 위한 여학생용이 있었는데, 남학생용은 주인공을 남학생으로 제시한 것이었고, 여학생용은 주인공을 여학생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척도의 채점은 각 상황별로 최선의 반응이라고 선택한 문항의 번호에 해당하는 점수(1단계 1점~5단계 5점)를 주어 합산하고, 이렇게 계산된 네 상황의 평균치를 응답자

6) 예로써 “이성 친구와의 사랑과 동성 친구와의 우정의 문제”에 대한 상황과 단계별 문항(남학생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고등학생인 민기는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여학생과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다.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고, 좋아하는 분야가 같아서 민기와 여학생은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점차 민기는 이 여학생을 좋아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자주 만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민기는 자신이 좋아하게 된 이 여학생이 자기 남자 친구의 여자 친구임을 알게 되었다.

- ① 그 여학생을 쟁취해야 한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 ② 원래 모르던 상태였고, 친구에게는 미안하지만, 여학생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말하고, 여자에게 결정권을 준다.
- ③ 여학생과 헤어진다. 친구의 여자 친구를 빼앗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고, 이로 인해 친구와의 우정에 금이 갈 수 있다.
- ④ 자신의 친구에게 그 여학생을 진정으로 좋아하느냐고 물어본 후, 그렇다면 여자 친구에게 결정권을 준다.
- ⑤ 세 사람 모두의 감정과 생각이 중요하므로,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관계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의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의 점수로 삼았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상위의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나타낸다.

절차

선정된 학교의 해당 학급 담당교사들에게 설문지에 대한 소개와 작성 요령 및 주의 사항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 후, 각 학교에서 담당교사의 지도 아래 학교 수업 시간 중에 집단적으로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25분이었다.

결과 및 해석

문화성향 집단 선별

문화성향에 따른 제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체 분석대상자 504명 중 문화성향척도에서 무응답 항목이 있는 23명을 제외한 481명을 일차적으로 네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각 응답자별 전체 개인중심성향(VI+HI)과 전체 집단중심성향(VC+HC)의 점수를 바탕으로 하여, 각각의 중앙치를 기준으로 고·저 집단으로 나누고, 이 네 개의 집단 중 “개인중심성향 고 - 집단중심성향 저”인 100명(20.8%)을 개인중심성향자 집단으로, “개인중심성향 저 - 집단중심성향 고”인 95명(19.8%)을 집단중심성향자 집단으로 선별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성역할 정체감의 성별 차이 분석과 각 검증 항목의 상관분석의 경우에는 전체 504명의 자료를, 그리고 문화성향자 집단간 차이 분석의 경우에는 이들 195명의 자료를 주축으로 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성역할 정체감의 성별 차이

성역할 정체감 척도는 전통적으로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라고 간주되어 온 특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정진경(1990)의 성역할 정체감 척도는 이미 15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이 척도에서 사용한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오늘의 고등학생들의 성역할 정체감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것인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확인해보기 위해 본 연구에 참가한 남자고등학생 중 성역할 정체감에 대해 무응답을 보인 7명을 제외한 246명과 여자고등학생 251명의 자료를 기

표 1. 성별 성역할 정체감의 평균(표준편차)

	남성성	여성성
남학생	4.38(.90)	4.56(.72)
여학생	4.19(.84)	4.53(.85)

초로, 성별 성역할 정체감(남성성·여성성) 점수를 분석하였다. 성별 성역할 정체감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면, 성역할 정체감 남성성은 남학생(4.38)이 여학생(4.19)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검출되었다, $t=2.41, p<.01$. 그러나 성역할 정체감 여성성은 남학생(4.56)과 여학생(4.53)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t<1.00$. 이러한 결과는 정진경(1990)의 자료와 일치하는 것이다. 여기서 표1과 비교해 보기 위해 정진경(1990, p. 89, 표 7)의 결과를 옮겨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이러한 정진경(1990)의 결과에서도 성역할 정체감 남성성은 남학생(4.67)이 여학생(3.80)보다 높지만, $t=5.86, p<.001$, 성역할 정체감 여성성은 남학생(4.75)과 여학생(4.55)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출되고 있다, $t=1.55, p>.05$.

표 1과 표 2의 결과가 이렇게 일치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16년 전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성된 성역할 정체감 척도를 현재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하여도 별 무리가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표 1과 표 2에서 일관되게 남·녀 학생 모두 여성성이 남성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물론 남성성과 여성성 척도가 서로 달라 이 둘을 함께 분석하는 데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향을 표 1의 자료를 기초로 성별(남·녀)×성역할 정체감(여성성·남성성)에서 뒤의 요인이 반복 측정된 설계의 변량분석을 해 본 결과, 성역할 정체감 여성성(4.55)이 성역할 정체감 남성성(4.29)보다 유의미하게 높다, $F=41.66, df=1/495, p<.001$.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성별과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F=4.02, df=1/495, p<.05$.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나 여학생 모두 여성성이 남성성보다 높지만, 두 성역할 정체감 사이의 차이는 남학생의 경우(.18)보다 여학생의 경우(.34)가 더 크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고등학생의 경우, 여학생이 남성

표 2. 대학생자료의 성별 성역할 정체감의 평균(표준편차)

	남성성	여성성
남자 대학생	4.67(.92)	4.75(.81)
여자 대학생	3.80(.84)	4.55(.71)

화된 정도보다는 남학생이 여성화된 경향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으로, 사회 전반적인 남성의 여성화 추세를 반영하는 결과(박정현, 2005)인 것 같아 흥미롭다. 그러나 일부 남학생의 여성화 추세를 우려하는 입장은 일련의 연속선 상에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정반대되는 특성으로 보아, 한 개인을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어느 한쪽만의 특성을 가진 존재로 규정하므로써, 남성적이면서 동시에 여성적일 수 있는 양성성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데,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 지닌 양성적 인간이 더 융통성 있고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남학생의 여성화는 반드시 남성적 특성의 결여, 혹은 개인적·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심미옥, 2001).

문화성향과 성역할 정체감

문화성향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의 차이를 상관분석과 문화성향자 집단간 평균차 분석의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상관 분석

전체 연구 참가자(504명)의 두 문화성향과 두 성역할 정체감 사이의 상관을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이 표에서 보듯이, 집단중심성향은 여성성 성역할 정체감과는 높은 정적 상관($r=.32$)을 보이지만, 남성성 성역할 정체감과는 부적 상관($r=-.14$)을 보이고 있다. 이 두 상관 계수 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미한 것이다, $t=3.86$, $p<.001$. 반대로 개인중심성향은 남성성 성역할 정체감과는 매우 큰 정적 상관($r=.42$)을 보이거나 여성성 성역할 정체감과는

표 5. 문화성향자 집단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분포(명)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양성성	합 계
집단중심성향자	14(15.1%)	30(32.3%)	22(23.6%)	27(29.0%)	93(100%)
개인중심성향자	35(35.4%)	12(12.1%)	23(23.2%)	29(29.3%)	99(100%)

표 3. 문화성향과 성역할 정체감의 상관(r)

	여성성	남성성
집단중심성향	.32***	-.14**
개인중심성향	-.14**	.42***

** $p<.01$, *** $p<.001$

부적 상관($r=-.14$)을 보이고 있다. 이 두 상관 계수 사이의 차이도 매우 유의미하다, $t=5.00$, $p<.001$.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에서 예측하던 바대로의 것이다.

문화성향자 집단간의 차이

두 문화성향자 집단의 여성성·남성성 수준의 평균치는 표 4와 같다.

표 4. 두 문화성향자 집단의 여성성·남성성 수준(표준편차)

	여성성	남성성
집단중심성향자	4.66(.69)	4.08(.86)
개인중심성향자	4.36(.66)	4.50(.76)

표 4에서 보듯이, 여성성과 남성성은 두 문화성향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여성성의 수준은 집단중심성향자 집단(4.66)이 개인중심성향자 집단(4.36)보다 유의미하게 높고, $t=3.07$, $p<.001$, 남성성 수준은 개인중심성향자 집단(4.50)이 집단중심성향자 집단(4.08)보다 유의미하게 높다, $t=3.56$, $p<.001$. 이러한 결과도 예측하던 바와 일치하는 것이다.

참고로 성역할 정체감을 정진경(1990)의 중앙치 분류법에 따라 남성성·여성성·미분화·양성성의 네 유형으로 나누고, 문화성향 집단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집단중심성향자 집단의 경우는 여성성 유형

(32.3%)이 남성성 유형(15.1%)의 비율보다 높으며, 개인 중심성향자 집단의 경우는 남성성 유형(35.4%)이 여성성 유형(12.1%)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 $\chi^2=16.61$, $df=3$, $p<.001$.

문화성향과 도덕성 수준

문화성향에 따른 두 도덕성 수준의 차이를 상관 분석과 문화성향자 집단간 평균차 분석의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상관분석

전체 연구참가자의 두 문화성향과 두 도덕성 수준 사이의 상관을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6. 문화성향과 도덕성 수준 간의 상관(r)

	정의지향적 도덕성	배려지향적 도덕성
집단중심성향	-.07	.35***
개인중심성향	.19***	-.29***

*** $p<.001$

이 표에서 보면, 정의지향적 도덕성은 집단중심성향과는 거의 상관을 보이지 않으나 개인중심성향과는 커다란 정적 상관($r=.19$)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상관 계수 사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t=1.80$, $.05<p<.07$. 이와는 반대로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개인중심성향과는 커다란 부적 상관($r=-.29$)을 보이지만, 집단중심성향과는 높은 정적 상관($r=.35$)을 보이며, 이러한 두 상관 계수 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 $t=2.96$, $p<.01$.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이 연구에서 기대하던 바대로의 것이다.

문화성향자 집단간의 차이

두 문화성향자 집단의 정의지향적 도덕성 수준(P%)과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의 평균치는 표 7과 같다.

이 표에서 보면, P% 점수로 측정된 정의지향적 도덕성 수준은 개인중심성향자 집단(39.70)이 집단중심성향자 집단(36.53)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인 유의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t=1.58$, $.05<p<.08$. 하지만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은 집

표 7. 두 문화성향집단의 두 도덕성 수준의 평균(표준편차)

	정의지향적 도덕성(P%)	배려지향적 도덕성
집단중심성향자	36.53(13.99)	3.82(.62)
개인중심성향자	39.70(13.98)	3.37(.66)

단중심성향자 집단(3.82)이 개인중심성향자 집단(3.37)보다 훨씬 높다, $t=4.94$, $p<.001$. 이러한 결과도 이 연구의 예측을 대체로 지지해주는 것이다.

문화성향, 성역할 정체감, 도덕성 수준의 관계

지금까지의 결과에서 보았듯이, 개인중심성향은 남성성 성역할 정체감 및 정의지향적 도덕성 수준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또한 개인중심성향자 집단의 남성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 수준은 집단중심성향자 집단의 그것보다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집단중심성향은 여성성 성역할 정체감 및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또한 집단중심성향자 집단의 여성성과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은 개인중심성향자 집단의 그것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남성성과 여성성의 성역할 정체감 수준이 각각 개인중심성향자와 집단중심성향자에게서 정의의 도덕성과 배려의 도덕성이 특징적으로 발달하는 데에 매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Baron과 Kenny(1986) 및 Sedikides, Gaertner와 Toguchi(2003)에 따르면, ㉠ 개인중심성향 (또는 집단중심성향)이 정의지향적 도덕성 (또는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 개인중심성향 (또는 집단중심성향)이 남성성 (또는 여성성) 성역할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 남성성 (또는 여성성)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개인중심성향 (또는 집단중심성향)이 정의지향적 (또는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된다면, 성역할 정체감(남성성 또는 여성성)은 문화성향(개인중심성향 또는 집단중심성향)이 도덕성(정의지향적 도덕성 또는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매개한다(mediate)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에서 ㉠와 ㉡의 조건은 충족되고 있다(각각 표 6, 7과 표 3, 4 참조). 여기서 ㉢의 조건은 두 도덕성 수준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두 문화성향(1단계)과 두 성역할 정체감(2단

계)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을 한 다음, 2단계에서 성역할 정체감이 추가되므로써 1단계의 문화성향의 영향력이 감소되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이러한 영향력의 감소는 Kenny(2001)가 추천한 대로, Sobel (1982)의 Z 검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정의지향적 도덕성

두 문화성향자 집단의 정의지향적 도덕성 수준을 종속 변인으로 하고, 두 문화성향(개인중심성향·집단중심성향)과 두 성역할 정체감(남성성·여성성) 수준을 1단계와 2단계 예언변인으로 하여 중다 회귀 분석을 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정의지향도덕성 수준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Model	독립변인	Beta	t
1	개인중심성향	.25	2.66**
	집단중심성향	.09	.96
$R^2=.041 F_{(2, 189)} = 4.04^*$			
2	개인중심성향	.22	2.17*
	집단중심성향	.04	.39
	성역할 정체감 - 남성성	.02	.24
	성역할 정체감 - 여성성	.12	1.53
$R^2=.055 \Delta R^2=.014 F_{(4, 187)} = 2.74^*$			

* $p<.05$, ** $p<.01$

표 8에서 보듯이, 1단계 회귀 분석에서 개인중심성향만이 정의지향적 도덕성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4% 수준에 머무는 것이다. 2단계에서 성역할 정체감 수준을 첨가하였을 때, 두 성역할 정체감 수준은 정의지향적 도덕성 수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Delta F(2, 187)=1.43, p>.05$. 성역할 정체감이 첨가됨으로써 정의지향적 도덕성 수준이 증가되는 양은 겨우 1%

7) Sobel(1982)에 따르면, 성역할 정체감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문화성향이 도덕성 수준에 미치는 효과가 감소되는 정도는 다음 공식에 따라 검증될 수 있다 :

$$Z = \frac{ab}{\sqrt{b^2s_a^2 + a^2s_b^2 - s_a^2s_b^2}}$$

a : 독립변인(이 경우는 문화성향)의 비표준 회귀계수
 b : 매개변인(이 경우는 성역할 정체감)의 비표준 회귀계수
 S_a : a의 표준오차
 S_b : b의 표준오차

정도이다. 또한 성역할 정체감이 첨가됨으로써 개인중심성향의 영향력은 .25 수준에서 .22로 감소되고 있으나, 그 크기는 남성성 성역할 정체감($Z=.26$)이나 여성성 성역할 정체감($Z=1.38$)의 경우에 모두 유의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p>.05$). 이러한 결과는 정의지향적 도덕성 수준의 발달 과정에서 성역할 정체감 수준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연구의 예측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배려지향적 도덕성

두 문화성향자 집단의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을 종속 변인으로 하고, 두 문화성향과 성역할 정체감 수준을 1단계와 2단계 예언변인으로 하여 중다 회귀 분석을 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배려지향도덕성 수준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Model	독립변인	Beta	t
1	개인중심성향	-.11	-1.23
	집단중심성향	.29	3.30**
$R^2=.137 F_{(2, 189)}=15.03^{**}$			
2	개인중심성향	-.20	-2.05*
	집단중심성향	.21	2.28*
	성역할 정체감 - 남성성	.13	1.69
	성역할 정체감 - 여성성	.14	2.00*
$R^2=.178 \Delta R^2=.041 F_{(4, 187)}=10.15^{**}$			

* $p<.05$, ** $p<.001$

표 9에서 보듯이, 1단계 회귀 분석에서 집단중심성향만이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력은 14% 가까이 된다. 2단계에서 성역할 정체감을 첨가하면, 문화성향에 덧붙여 여성성 정체감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데, $\Delta F(2, 187)=4.68, p<.01$, 이를 통해 얻어지는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의 설명 증가량은 4%에 이른다. 또한 성역할 정체감이 첨가됨으로써 집단중심성향이 배려지향적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29 수준에서 .21로 감소되고 있다. 이 경우 여성성 성역할 정체감은 집단중심성향의 영향력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고 있으나, $Z=1.74, p<.05$, 일방검증, 남성성 성역할 정체감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 $Z=1.57, p>.05$. 이

러한 결과는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의 발달 과정에서 여성성 성역할 정체감 수준이 어느 정도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연구의 예측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다.

논 의

연구 결과의 요약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성향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과 도덕적 지향성의 차이를 살펴보고, 문화성향자 집단간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차이가 그들의 도덕적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 것이다.

우선 연구참가자들의 성역할 정체감과 문화성향의 관계(표 3)에서, 남성성 성역할 정체감은 개인중심성향과는 매우 높은 정적 상관($r=.42$)을 갖지만 집단중심성향과는 비교적 커다란 부적 상관($r=-.14$)을 띠어 서로 반대되는 방향의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t=4.04$, $p<.001$, 여성성 성역할 정체감은 집단중심성향과는 매우 높은 정적 상관($r=.32$)을 갖지만 개인중심성향과는 비교적 커다란 부적 상관($r=-.14$)을 띠어, 역시 서로 반대되는 방향의 상관을 보이고 있다, $t=3.25$, $p<.001$. 이러한 결과는 개인중심성향이 높을수록 남성성 성역할 정체감 수준은 높고 여성성 성역할 정체감 수준은 낮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집단중심성향이 높을수록 여성성 성역할 정체감 수준은 높고 남성성 성역할 정체감 수준은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두 문화성향자 집단의 남성성과 여성성 성역할 수준의 평균차 분석(표 4 참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⁸⁾.

다음으로 연구참가자들의 문화성향과 두 도덕성 수준의 관계(표 6)에서, 집단중심성향은 정의지향적 도덕성 수준과는 별 상관을 보이지 않으나($r=-.07$)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과는 매우 높은 정적 상관($r=.35$)을 띠어, 서로 다

른 상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t=3.06$, $p<.001$,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인중심성향은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과는 매우 큰 부적 상관($r=-.29$)을 띠나 정의지향적 도덕성 수준과는 상당히 커다란 정적 상관($r=.19$)을 보여, 서로 반대되는 상관의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t=3.58$, $p<.001$. 이러한 결과는 개인중심성향이 높을수록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은 낮고 정의지향적 도덕성 수준은 높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집단중심성향이 높아짐에 따라 정의지향적 도덕성 수준은 별 차이가 없지만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은 높게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두 문화성향자 집단의 두 도덕성 수준의 평균차 분석(표 7 참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우선 Kohlberg의 도덕 판단 6단계 중 인습 이후 수준에 해당하는 5-6단계의 판단이 차지하는 비율인 P%가 집단중심성향자 집단(36.53)보다 개인중심성향자 집단(39.70)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⁹⁾. 즉, 정의지향적 도덕성은 집단중심성향자보다 개인중심성향자 집단이 대체로 더 높은 발달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Gilligan(1982)의 5단계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을 보면, 집단중심성향자 집단(3.82)이 개인중심성향자 집단(3.37)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

이렇게 두 유형의 문화성향에 따라 서로 다른 성역할 정체감의 수준이 달라지고, 또 문화성향에 따라 서로 다른 도덕성의 수준에 차이가 난다면, 성역할 정체감이 문화성향과 도덕성 수준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Baron & Kenny, 1986; Sedikides et al., 2003). 이 연구의 결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의 경우에는 남성성 성역할 정체감이 개인중심성향과 도덕성 사이에서 아무런 매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표 8 참조). 그러나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경우에는 여성성 성역할 정체감이 집단중심성향과 도덕성 사이에서 어느 정도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표 9 참조). 이는 집단중심성향자들이 개인중심성향자들보다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이 높은 것은 이들이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

8) 성역할 정체감과 관련하여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아야 할 것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주도적·도구적 특성을 남성성과 관련시키고, 친교적·공동체적 특성을 여성성과 관련지어 온 관례(정진경, 1990; Bem, 1974)가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사고는 성 고정관념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원천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들을 표현하는 좀 더 중립적인 용어가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9) 이 연구에서 두 문화성향자 집단 전체의 P% 점수의 평균치는 38.15이다. 이는 이 연구와 같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얻은 문용린(1986)의 39.80, 박찬주(1989)의 40.89, 심재호(1992)의 38.68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러한 사실은 제작된지 20년이 지난 “한국판 DIT 검사”(문용린, 1986)가 아직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척도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려 및 대인관계에서의 조화 추구하고 같은 여성성 성역할 특성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데에서 그 까닭의 일단을 찾아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인 것이다.

개인주의 사회의 이성중심주의와 정의의 도덕관

서구 개인주의 사회는 자유주의를 사상적 근간으로 하여 성립되고 있다(조궁호, 2006; Laurent, 1993/2001; Lukes, 1973). 그러므로 개인주의 사회에서 인간을 파악하는 핵심은 개인 존재를 천부적인 자유와 권리의 보유자로 본다. 이러한 태도는 결과적으로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삶의 태도를 낳게 된다. 자유의 주체로 개인을 파악하는 관점에서는 필연적으로 인간을 이성의 주체로 보는 입장이 도출된다. 자유주의의 이념은 개인을 자기 자신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 곧 이기적인 정열과 욕망에 따라 활동하는 존재로 보는 전체 위에서 성립하는데(노명식, 1991), 이러한 이익 추구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이익 갈등을 합리적인 이성의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성을 통한 합리적 계산으로 인해 개인들은 서로 공정한 행위 원칙에 합의하게 되는데, 이러한 계약의 결과물이 바로 사회이다. 이와 같이 이성의 주체로 개인 존재를 파악하는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합리적이고도 보편적인 행위 원칙을 중시하는 태도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중시하는 입장은 각 개체가 개별적으로 안정적·일관적인 속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는 실체설적 인간 파악(Dweck, 1991; Nisbett, 2003)의 태도로 이어진다.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인간을 자유의 보유자, 이성 주체, 안정적 실체로 파악하여,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 합리성과 보편성, 안정성과 일관성을 중시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도덕성도 개인의 독립성·자율성·권리 등을 보호하는 합리적이고도, 일관적이며, 보편적인 행위 원칙, 즉 정의의 원칙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본다. 이들은 인간의 합리적 이성이 이러한 정의와 도덕의 원천이라고 여기는 것이다(노명식, 1991; 조궁호, 2006; Laurent, 1993/2001; Lukes, 1973; Nisbett, 2003).

이러한 이성중심주의의 입장은 Platon으로부터 이어지는 서구 개인주의 사회의 특징이었다(박전규, 1985;

Bordt, 1999/2003; Guthrie, 1960/2003). Platon은 이성이 감정과 충동을 억제하여 이들 사이에 통합을 이루는 것이 정의라고 보았으며(Bordt, 1999/2003, pp. 109-110), 또한 덕(德, aretē)은 이성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자신이 하는 일에서 탁월함을 성취하는 것(Guthrie, 1960/2003, p. 23)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리스 시대 이래 이어진 이러한 이성중심주의는 서구 사회의 도덕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Piaget(1932/1965)와 Kohlberg(1976, 1981, 1984) 등이 제시한 현대 서구심리학의 핵심적인 도덕성 이론이 도덕성을 도덕 판단 능력(인지 능력)과 동일시하여 보고 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이렇게 서구 개인주의 사회에서 지배적인 정의의 도덕성의 관념은 합리적·보편적·원리추구적인 이성중심주의의 소산인 것이다. Gilligan(1982)이 정의의 도덕성을 합리적 계산, 개인적 이익 추구, 독립성, 자유, 적극적 자기주장 등 남성성 성역할과 관련지어 이해하려 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성중심주의에 기초한 이러한 정의의 도덕성이 범문화적인 보편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 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Taylor(1989)가 이미 지적하고 있듯이, 인간을 파악하는 입장이 서구 개인주의 사회와 달라지게 되면, 그 사회의 지배적인 도덕관은 정의의 도덕관과는 다른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집단주의 사회의 덕성중심주의와 배려의 도덕관

동아시아 집단주의 사회는 유학 사상을 근간으로 하여 성립되고 있다(조궁호, 2006; Fiske et al., 1998; Hsu, 1971; Nisbett, 2003; Tu, Wei-Ming, 1985). 유학 사상은 인간을 사회적 관계체, 능동적 주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고 본다(조궁호, 1998, 2003a, 2006). 유학 사상에서는 사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는 부자·군신·부부·장유·붕우로 대표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고 보고, 따라서 인간의 존재 의미는 개체적 속성이나 독립성에서가 아니라 이러한 관계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여긴다. 이것이 사회적 관계체로 인간을 파악하는 관점이다. 이렇게 인간을 사회적 관계체로 보게 되면, 개인 존재를 사회 관계에 내포되어 있는 역할·의무 및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복합체로 인식하게 된다. 이들은 각 관계에서 서로에게 요구되는 쌍무적인 역할과 의무의 수행을 통해 관

계의 조화와 질서가 달성되고, 조화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간주한다. 결과적으로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사회행위의 원동력을 개인이 처한 사회관계 속의 역할과 의무에서 찾으며, 이러한 역할과 의무의 근거인 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상호연계성이나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중시한다.

이렇게 행위원동력을 관계 속의 역할·의무·배려 등에서 찾게 되면, 결국 사회행위의 목표는 실생활에서 관계당사자들에게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복지에 책임을 짐으로써, 사회관계 속에서 조화를 추구하는 데로 귀결된다. 이렇게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역할과 의무의 수행 등을 통해 사회생활의 조화를 이루는 일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덕성의 근거를 본유적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유학자들은 본다. 즉, 인간은 누구나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나보다 먼저 배려하는 도덕성¹⁰⁾을 갖추고 있는 덕성의 주체로서, 누구나 능동적·주체적으로 이렇게 스스로가 도덕의 주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실생활에서 덕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이다(조궁호, 1998, 2003a, 2006; Hsu, 1971; Tu, Wei-Ming, 1985).

인간을 이렇게 덕성 주체로 보는 입장은 덕성중심주의에 의해 인간 삶의 과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낳는다. 인간의 이성·감정·욕구 등이 모두 덕성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바른 삶의 자세이고 이상적 인간이 되는 길이라고 유학자들은 주장한다. 곧, 서구 사상에서 이성·감성·욕구(지·정·의)의 삼분체계로 인간의 심성을 파악해 온 것(박전규, 1985; Bordt, 1999/2003; Guthrie, 1960/2003; Hilgard, 1980; Parkinson & Colman, 1995)과는 달리, 유학 사상에서는 이 세 가지 이외에 덕성도 인간의 심성을 구성하는 체계이며, 이 중에서 덕성이 가장 중핵적인 심성 구성 체계라고 간주한다(조궁호, 1998, 2003a, 2006).

이러한 덕성중심주의의 도덕관은 지극히 관계중심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행위 원칙인 정의의 원칙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이차적인 중요성을 가질 뿐이며, 이보다는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이 더 중요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공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섭공이란 사람이 공자에게 “우리 무리에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남의 양을 훔치자, 관가에 고발하여 이를 증명하였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이에 대해 공자는 “우리 무리의 정직한 사람은 이와 다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하여 숨겨주고, 자식은 아버지를 위하여 숨겨줍니다. 정직한은 바로 이러한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論語 子路篇 18장)

객관적인 정의 원칙보다 부모-자식 사이의 윤리가 더욱 중요하며, 구태여 정의의 원칙을 내세우지 않아도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면, 저절로 바른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공자의 견해였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 윤리, 곧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정의 원칙보다 우선한다고 공자는 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공자가 객관적인 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객관적 원칙보다는 모든 행위의 출발 원천이 되는 대인관계에서 서로 배려하고 상대방의 복지에 대해 책임을 지려 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공자는 이러한 대인관계에서 서로 간의 배려와 책임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면, 객관적인 행위 원칙의 도출 근거 자체가 사라진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집단주의 사회에서 지배적인 배려의 도덕성의 핵심이다.

앞으로의 연구 과제

지금까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사회에서 인간을 파악하는 관점이 달라짐에 따라 두 사회에서 지배적인 도덕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즉, 개인중심적 인간관을 보유하고 있는 서구 개인주의 사회에 지배적인 도덕관이 객관적인 정의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관계중심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집단주의 사회에 지배적인 도덕관은 배려와 책임의 윤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본 연구 이외에도 많은 연구들에서 논의되어 왔다(Fiske et al., 1998, pp. 939-943 참

10) 유학의 창시자인 공자(孔子)는 자기 사상의 핵심인 인(仁)에 대하여, “무릇 인이란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을 먼저 세워주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면 남이 먼저 이루게 해주는 일”(論語 雍也篇 28장), “자기가 하려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는 일”(顔淵篇 2장; 衛靈公篇 23장), 또는 “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顔淵篇 22장)로서, “자기의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을 행하는 일”(顔淵篇 1장)이라고 하여,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모든 덕성의 기초임을 역설하고 있다.

조). 그러나 지금까지 이 분야의 연구들은 문화 유형에 따라 한 사회의 지배적인 도덕관의 특성이 다른 사회에서는 나타나지 않거나 또는 나타나더라도 그 양이 적다는 사실만을 밝혀왔을 뿐, 각 도덕성의 원천, 본질 또는 기능 등의 근본적인 차이를 밝혀려는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정의와 배려가 상충하는 딜레마 상황에서 개인중심성향자와 집단중심성향자의 도덕 판단 원칙 선택의 차이를 확인하는 등 많은 보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도 있을 것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비교의 기준과 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매우 힘든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도덕성의 문제가 인간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작업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기범 (1996). 대인관계 속에서의 도덕성과 내집단-외집단 구별 : 문화비교 분석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 김정규, 박찬주 (1991). 도덕성 발달과 측정 : 인지발달론적 접근과 DIT. 서울 : 성원사.
- 김호권 (1969). 도덕성의 발달과 교육. 정원식 편, 정의의 교육 (pp. 211-234). 서울 : 배영사.
- 노명식 (1991). 자유주의의 원리와 역사 : 그 비판적 연구. 서울 : 민음사.
- 문용린 (1986). 생활 문제 설문지 : 한국어판 DIT 설문지.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도덕교육연구실.
- 박전규 (1985).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적 지혜. 서울 : 서광사.
- 박정현 (2005). 하얀 얼굴이 좋은 메트로 섹슈얼리즘 : 미남은 꽃보다 아름답다. LG경제연구원 편, 2010 대한민국 트렌드 (pp. 51-55). 서울 : 한국경제신문.
- 박찬주 (1989). 한국인의 도덕 판단과 행동 선택에 관한 DIT 적용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 심미옥 (2001). 교직의 여성화와 교직에서의 여성. 2001년 한국교육사회학회 하계학술발표회 발표논문.
- 심재호 (1992). 한국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 경향에 대한 분석연구 : J. R. Rest의 DIT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이수원 (1995a). 한국인의 인정 : 그 심리학의 함의 (I). 임능빈 편, 동양사상과 심리학 (pp. 545-560). 서울 : 성원사.
- 이수원 (1995b). 한국인의 인정 : 그 심리학의 함의 (II). 임능빈 편, 동양사상과 심리학 (pp. 561-581). 서울 : 성원사.
- 장성수, 이수원, 정진곤 (1990). 한국인의 인간관계에 나타난 분배정의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3, 217-265. 한양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정옥분, 광경화 (2003).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 서울 : 집문당.
- 정진경 (1990). 한국 성역할 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5(1), 82-92.
- 조궁호 (1993). 대인평가의 문화간 차이 : 대인평가 이원 모형의 확대 시론.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7(1), 124-149.
- 조궁호 (1996). 문화유형과 타인이해 양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15(1), 104-139.
- 조궁호 (1997). 문화유형과 정서의 차이 : 한국인의 정서 이해를 위한 시론. 심리과학, 6(2), 1-43.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 조궁호 (1998). 유학심리학 : 맹자·순자 편. 서울 : 나남출판.
- 조궁호 (1999). 문화유형에 따른 동기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3(2), 233-273.
- 조궁호 (2000). 문화유형과 동기의 차이 : 한국인의 동기 이해를 위한 시론.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4(2), 83-122.
- 조궁호 (2002). 문화성향과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6(1), 91-111.
- 조궁호 (2003a). 한국인 이해의 개념틀. 서울 : 나남출판.
- 조궁호 (2003b). 문화성향과 통제 양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7(2), 85-106.
- 조궁호 (2005). 문화성향에 따른 유사성 판단의 비대칭성.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9(1), 45-63.
- 조궁호 (2006). 이상적 인간형론의 동·서 비교 : 새로운 심리학의 가능성 탐색 I. 서울 : 지식산업사.
- 조궁호, 김소연 (1998). 겸양편향자의 선호 현상.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2(1), 169-189.

- 조공호, 김은진 (2001). 문화성향과 동조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39-165.
- 조공호, 김지용, 홍미화, 김지현 (2002). 문화성향과 공감 및 고독의 수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3), 15-34.
- 조공호, 명정완 (2001). 문화성향과 자의식의 유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11-139.
- 朱 熹 (1177). *論語集註* (京城書籍組合 編, 原本備旨 論語集註. 서울: 太山文化社, 1984.).
- 최상진, 한규석 (2000). 문화심리학적 연구방법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2), 123-144.
- 한규석 (1991). 사회심리학 이론의 문화특수성: 한국인의 사회심리학 연구를 위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1), 132-155.
- 한규석 (2002). 사회심리학의 이해 (개정판). 서울: 학지사.
- 한규석, 오점조 (1993). 아동의 교류 양상에 대한 분석: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7(1), 185-197.
- Bakan, D. (1966). *The duality of human existenc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ergling, K. (1981). *Moral development: The validity of Kohlberg's theory*. Stockholm: Almqvist and Wiksell International.
- Bond, M. H. (1994). Into the heart of collectivism: A personal and scientific journey.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pp. 66-76). Thousand Oaks, CA: Sage.
- Bordt, M. (1999). *Platon*. Freiburg: Verlag Herder. (한석환 역. 철학자 플라톤. 서울: 이학사, 2003.)
- Clark, M. S., & Mills, J. (1993) The difference between communal and exchange relationships: What is and is no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 684-691.
- Dweck, C. S. (1991). Self-theories and goals: Their role in motivation, personality, and development. In R. A. Dienstbier (Ed.), *Perspectives on motivatio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90* (pp. 199-235). Lincoln, NB: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Edwards, C. (1981).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development of moral judgement and reasoning. In R. L. Munroe, R. H. Munroe, & B. Whiting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human development* (pp. 501-531). New York: Garland.
- Fiske, A. P., Kitayama, S., Markus, H. R., & Nisbett, R. E. (1998). The cultural matrix of social psychology. In D. T. Gil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Vol. 2, pp. 915-981). Boston, MA: McGraw-Hill.
- Geen, R. G. (1995). *Human motivation: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Gielen, U. P., & Markoulis, D. C. (1994). Preference for principled moral reasoning: A developmental and cross-cultural perspective. In L. L. Adler & U. P. Gielen (Eds.), *Cross-cultural topics in psychology* (pp. 73-87). Westport, CT: Praeger.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uthrie, W. K. C. (1960). *The Greek philosophers: From Thales to Aristotle*. New York: Harper & Row. (박종현 역. 희랍 철학 입문: 탈레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서울: 서광사, 2003.)
- Hamilton, V. L., Blumenfeld, C., Akoh, H., & Miura, K. (1990). Credit and blame among American and Japanese children: Normative, cultural, and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442-451.

- Hilgard, E. R. (1980). The trilogy of mind : Cognition, affection, and conation. *Journal of the History of the Behavioral Sciences*, 16, 107-117.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 Sage.
-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 Software of the mind*. London : McGraw-Hill. (차재호, 나은영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 : 학지사, 1995.)
- Hsu, F. L. K. (1971). Psychological homeostasis and jen : Conceptual tools for advancing psychological anthropology. *American Anthropologist*, 73, 23-44.
- Hui, C. H., & Triandis, H. C. (1986).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A study of cross-cultural researcher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7, 225-248.
- Kagitcibasi, C. (1997).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W. Berry, M. H. Segall, & C. Kagitcibasi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nd ed., Vol. 3, pp. 1-49). Boston, MA : Allyn & Bacon.
- Kenny, D. A. (2001). *Mediation : Issues and questions*. Retrieved from <http://nw3.nai.net/~dakenny/mediate.htm>
- Kittay, E. F., & Meyers, D. T. (Eds.). (1987). *Women and moral theory*. Totowa, NJ : Rowman & Littlefield.
- Kohlberg, S. (1976). *Moral stages and moralization : The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 Kohlberg, S. (1981).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moral stage and the idea of justice*. San Francisco, CA : Harper & Row.
- Kohlberg, S. (1984).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 The nature and validity of moral stages*. San Francisco, CA : Harper & Row.
- Kohlberg, L., Colby, A., Gibbs, J., & Speichere-Dubin, B. (1978). *Standard form scoring manual*. Cambridge, MA : Center for Moral Education, Harvard University.
- Laurent, A. (1993). *Historie de l'individualisme*. Paris :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김용민 역. 개인주의의 역사. 서울 : 한길사, 2001.)
- Lukes, S. (1973). *Individualism*. New York : Harper & Row.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tsumoto, D. (2000). *Culture and psychology : People around the world* (2nd ed.). Belmont, CA : Wadsworth.
- Miller, J. G. (1984). Culture and the development of everyday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61-978.
- Miller, J. G. (1991). A cultural perspective on the morality of beneficence and interpersonal responsibility. *International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nual*, 15, 11-23.
- Miller, J. G. (1994). Cultural diversity in the morality of caring : Individually-oriented versus duty-based interpersonal moral codes. *Cross-Cultural Research*, 28, 3-39.
- Miller, J. G. (1997). Cultural conceptions of duty. In D. Munro, J. F. Schumaker, & S. C. Carr (Eds.), *Motivation and culture* (pp. 178-192). New York : Routledge.
- Miller, J. G., & Bersoff, D. M. (1992). Cultural and moral judgement : How are conflicts between justice and interpersonal responsibilities resolv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541-554.
- Miller, J. G., & Bersoff, D. M. (1994). Cultural influences on the moral status of reciprocity and the discounting of endogenous motiv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92-602.
- Miller, J. G., Bersoff, D. M., & Harwood, R. L. (1990). Perceptions of social responsibilities in India and the United States : Moral imperatives or personal deci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chology*, 58, 33-47.
- Miller, J. G., & Luthar, S. (1989). Issues of interpersonal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 A comparison of Indians' and Americans' moral judgement. *Social Cognition*, 3, 237-261.
- Mills, J., & Clark, M. S. (1982). Exchange and communal relationships. In L. Wheeler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 pp. 121-144). Beverly Hills, CA : Sage.
- Nisbett, R. E. (2003). *The geography of thought : How Asians and Westerners think differently and why*. New York : Free Press.
- Nunner-Winkler, G. (1984). Two moralities? A critical discussion of an ethics of care and responsibility versus an ethics of rights and justice. In W. M. Kurtines & J. L. Gerwitz (Eds.), *Morality, moral behavior and moral development* (pp. 348-361). New York : Wiley.
- Parkinson, B., & Colman, A. M. (1995). Introduction. In B. Parkinson & A. W. Colman (Eds.), *Emotion and motivation* (pp. xi-xvi). London : Longman.
- Piaget, J. (1932).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New York : Free Press. (M. Gabain, Transl., 1965.)
- Rest, J. R. (1979). *Revised manual for Defining Issues Test*. Minneapolis, MN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edikides, C., Gaertner, L., & Toguchi, Y. (2003). Pancultural self-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60-79.
- Shweder, R. A., Mahapatra, M., & Miller, J. G. (1990). Culture and moral development. In J. W. Stigler, R. A. Shweder, & G. Herdt (Eds.), *Cultural psychology : Essays on comparative human development* (pp. 130-204).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P. S., & Gelfand, M.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 240-275.
- Skoe, E. E. (1987). *The development and partial validation of a care-based measure of moral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imon Fraser University.
- Smith, P. B. (1995).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 Looking to the futur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6, 588-590.
- Smith, P. B., Bond, M. H., & Kagitcibasi, C. (2006). *Understanding social psychology across cultures*. Thousand Oaks, CA : Sage.
- Snarey, J. R. (1985). Cross-cultural universality of social-moral development : A critical review of Kohlberg's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97, 202-232.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pp. 290-312). Washington, DC :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Söchting, I., Skoe, E. E., & Marcia, J. E. (1994). Care-oriented moral reasoning and prosocial behavior : A question of gender or sex role orientation. *Sex Roles*, 31, 131-147.
- Taylor, C. (1989). *Sources of the self : The making of modern identities*.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Triandis, H. C. (1988). Collectivism versus individualism : A reconceptualization of a basic concept of cross-cultural psychology. In G. K. Verma & C. Bagley (Eds.), *Cross-cultural studies of personality, attitudes and cognition* (pp. 60-95). London : Macmillan.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Triandis, H. C. (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J. Berman (Ed.), *Cross-cultural perspectives :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9* (pp. 41-133). Lincoln, NB : Uni-

- versity of Nebraska Press.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 Westview.
- Triandis, H. C., Bontempo, R., Villareal, M. J., Asai, M., & Lucca, N. (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323-338.
- Triandis, H. C., & Gelfand, M. J. (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18-128.
- Triandis, H. C., Leung, K., Villareal, M. J., & Clark, F. L. (1985). Allocentric versus ideocentric tendencies :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 395-415.
- Triandis, H. C., McCusker, C., Betancourt, H., Iwao, S., Leung, K., Salazar, J. M., Setiadi, B., Sinha, J. B. P., Touzard, H., & Zaleski, Z. (1993). An etic-emic analysi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4, 366-383.
- Triandis, H. C., McCusker, C., & Hui, C. H. (1990). Multimethod prob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006-1020.
- Tu, Wei-Ming (1985). Selfhood and otherness in Confucian thought. In A. J. Marsella, G. A. DeVos, & F. L. K. Hsu (Eds.), *Culture and self : Asian and Western perspective* (pp. 231-251). New York : Tavistock.
- Wiggins, J. S. (1992). Agency and communion as conceptual coordinates for the understanding and measurement of interpersonal behavior. In W. M. Grove & D. Cicchetti (Eds.), *Thinking clearly about psychology* (pp. 89-113). Minneapolis, MN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Yeh, C. (1996). *A cultural perspective on interdependence self and morality : A Japan-U. S. comparis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Cultural Dispositions, Sex-Role Identity, and Moral Orientation

Geung-Ho Cho
Sogang University

Jae-Young Lee
Chung-Dong High School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sex-role identity and of moral orientation between idiocentric and allocentric adolescents in Korea. From the total of 597 2nd-year high school students living in Seoul, 100 idiocentrics(20.8%) and 95 allocentrics(19.8%) were selected based on their INDCOL responses. As expected, (1) idiocentrics and allocentrics showed higher-levels of masculinity and of femininity sex-role identity than the other, respectively; (2) they reached higher-levels of justice-oriented and of care-oriented morality than the other, respectively; and (3) the overriding sex-role identity of each cultural-disposition-group mediates the development of their relevant moral orientation (especially femininity sex-role identity of allocentrics mediates the development of care-oriented morality level in this group). These results implicate that the pervasive type of moral orientation of a society is internalized as the sex-role identity level which is highly appreciated in that society is matured.

Keywords : cultural disposition(idiocentric-allocentric); sex-role identity(masculinity-femininity); moral orientation(justice-caring)

원고접수 : 2007년 1월 17일
심사통과 : 2007년 2월 8일